

◆ 國內外情報 ◆

韓·中산업기술協力에 새地平 — 實用化가능기술 商品化연계등 추진 —

中國의 기초기술을 우리나라의 자본 및 생산기술과 연계, 상품화하기 위한 韓·中 산업기술협력사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상공부와 생산기술연구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韓·中 테크노마트 추진 실무조사단은 이달초 中國방문을 통해 中國정부와 내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韓·中테크노마트(기술거래시장)를 北京에서 개최, 양국간 실용화 가능기술의 상품화 및 합작 투자를 촉진키로 합의했다.

이 사업은 中國 중앙정부에서 특정 국가를 상대로 자국의 개발기술을 제공, 추진하는 최초의 테크노마트사업이다.

中國은 이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산하 과학기술성과사에 등록된 약 5500여개 기술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매년 등록되는 연구개발결과(매년 3만여개)중 실용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약 400여개의 핵심기술을 추출, 이에 관한 세부기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中國측은 이와 관련, 지난 10월말에 101개 과제를 우리나라에 제시해온데 이어 이번 조사기간중 CNC 3차원측정기등 153개 과제를 제공했으며 금년말까지 나머지 협력가능 과제를 추가로 보내올 예정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기술의 분야별 과제수는 기계가 67개, 야금이 15개, 화공이 35개, 전자가 36개, 의료가 35개, 전제가 20개, 경공업이 17개, 농업이 21개, 환경이 8개등이다.

또 내년의 韓·中테크노마트 개최기간중 중국측에서는 300~400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 해당기술 과제와 중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과제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도 방문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 사업의 韓國측 실무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은 중국측이 연말까지 제시할 약 400여개 기술과제에

대한 합작투자 타당성을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평가, 분석해 기술협력과제를 선정하고 관련기술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 韓·中테크노마트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이와 관련, 국내기업중 상담회 참가 및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내년 2월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처 : 생산기술연구원 대외협력실, 전 화 8601-490 /3)

생산기술연구원은 이와함께 中國측이 제시하는 과제이외에도 韓國기업이 中國과의 협력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경우나 국내기술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중 中國측과 합작하길 희망하는 경우에도 韓·中기술상담회의 범위에 포함,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상공부는 中國의 경우 우주·항공등 첨단개발기술과 금속·화공·의약등 전통산업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기술이 많아 韓·中테크노마트가 중국의 기초기본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결합, 양국간 산업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업계 입장에서는 과거 중국지방부등과 개별적으로 투자 및 기술협력사업 전개시 경험했던 중국정부의 실질적 지원미흡, 정보부족에 따른 적정기술보유기관 및 적정파트너 탐색의 어려움 및 필요핵심기술 접근에의 어려움등을 해결할 수 있는등 중국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입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對중국투자 및 기술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용화 유망 中國기술 리스트

■ 1차 중국기술 List (전기관련)

- FET를 이용한 PC변환마크 용접기
- Magnetic-Synchro Transformer Silencer에 의한 절전형 JCQ코일 구동기술 및 설비장치
- 절전 및 무소음 AC Contactor의 구동기술
- 봉입형 납축전지
- 대면적 아몰퍼스 실리콘 태양전지의 생산기술

■ 2차 중국기술 List (전기관련)

- 494 디젤엔진 관련기술
- 무수은 Mn-Zn 건전지 (환경보호형 전지)
- 전기자동차용 무보수 납축전지
- 니켈 수소전지
- 리튬 티오닐 전지 및 리튬망간 전지
- 혼다 125형 모터사이클용 모터 생산라인
- 에너지 절약형 ZKJ계 에어컨
- 전자렌지용 LDB계 파워서플라이 트랜스포머 생산

日, 電機업계 外換예약 적극 - 40%가 하반기 決濟分 '100% 계획' -

수출의존도가 높아 엔高 타격을 크게 받은 일본의 電機업계가 최근 엔高 기세가 주춤해지자 외환 예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공업신문사 조사에 따르면 '하반기결제분 가운데 어느 정도를 외환 예약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100%'라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8社에 달했다.

조사결과 대상업체 20社 가운데 종래 보다 '예약을 줄인다'거나 '예약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반면 '늘린다'고 대답한 기업도 5社에 그쳤으며 나머지 15社는 모두 '지금까지와 변함이 없다'고 회답했다.

다만 '변함이 없다'는 회사 가운데서도 도시바등은 '상반기(4~9월)엔 대부분을 예약으로 커버했다'는 것인데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전체적으로는 서서히 예약을 늘려나가고 싶다는 것이 본심인 것 같다. 이를 뒷받침하듯 하반기 예약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8社가 '100% 예약한다'고 회답한 외에 '미정'이라고 한 2社를 제외하고 모든 업체가 '최종적으로는 50% 이상을 예약으로 커버하

고 싶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실제 각사 모두 예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예약계획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진척상황은 대부분의 기업이 달러표시 수출분의 50% 이상 '확보를 끝냈다'고 밝혔으며 예약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억제해온 히타치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40억달러의 달러매각중 이미 20억달러분을 예약했다'고 기민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1달러=100엔 가까이까지 엔高가 진행된 지난 5월경에 비하면 하반기 이후엔 1달러=108엔 전후로 추이하고 있는 만큼 각사 모두 비교적 예약을 받아 들이기 쉬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이같은 예약시의 달러에 대한 엔레이트는 '107엔 정도'라고 한 업체가 마쓰시타전기산업·NEC·후지쓰·옴론등 8社로 회답기업 19社 가운데 반수 가까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108엔'이 히타치·도시바·샤프등 4社였다. '110엔'도 파이오니아·TDK·橫河電機등 역시 4社였으며 '105엔미만' 업체는 전혀 없었다.

일본의 전기산업은 "1달러=110엔까지 라면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채산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한 업계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외환시세가 한층 엔약세로 전환, '110엔이라는 수치가 나오면 상당수준까지 예약을 추진'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 같다.

다만 그렇게 해서 예약을 하더라도 실질 엔수익 감소만큼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반기 결제 리이트를 107엔 50전으로 보고 있는 마쓰시타통신공업에서는 "작년도에 비해 금년 3월 결산기는 85억엔의 판매감소가 된다"고 고충을 털어 놓는다. 또 수출비율이 높은 소니·캐논에서는 1엔의 엔高로 연간 50억엔의 판매감소를 가져온다. 도시바·미쓰비시전기등 수출의존도가 낮은 종합전기 메이커들도 30억~45억엔 가까이 판매가 줄게 된다.

각사 모두 엔高 대응책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해외로의 생산이전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수출가격 인상 및 코스트다운의 추진으로 수익확보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어 전기산업은 오랫동안 어려운 기업운영이 불가피할 것 같다.

▲ 조사기업의 하반기 결제레이트 전망

〈社內레이트, 1달러 = 엔〉

기 업 명	하반기 전망	작년도 평균
히 타 치 제 작 소	108	(125)
도 시 바	105	(125)
미 쓰 비 시 전 기	105	(125)
마 쓰 시 타 전 기 산 업	107	(128)
소 니	105~110	(128)
산 요 전 기	110	(129)
샤 프	불명	(124)
일 본 빅 터	107	(129)
파 이 오 니 아	불명	(124)
N E C	105	(125)
후 지 쓰	105	(124)
후 지 電 機	105	(125)
오 키 電 氣 공 업	106	(126)
마 쓰 시 타 통 신 공 업	107	(127)
캐 논	107	(128)
리 코	105	(127)
교 세 라	105	(126)
음 론	107	(125)
橫 何 電 機	105~108	(124)
T D K	106	(125)

말聯, 500개 품목 輸入稅 감면

- AFTA 특혜관세 따라 -

말레이시아정부는 인플레이션 회피 및 아세안 자유무역권(AFTA)의 공통효과특혜관세(CEPT)에 대응, 최근 약 500개 품목의 수입세 감면조치를 발표,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는 180개 품목의 건축자재, 135개 품목의 식료품, 79개 품목의 의료기구, 44개 품목의 차량부품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에서 괄목할만한 것은 △ 관광촉진을 위해 캠핑카의 수입세를 현재의 140~300%에서 35%로 대폭 인하했고 △ 의료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X線照射器의 수입세를 20%에서 5%로 인하한 점이다.

또 △ 환경보호 관점에서 촉매컨버터 및 공해방지관련 기계설비를 면세조치했으며 △ R&D(연구 및 개발) 육성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회사 및 기관이 인가를 받은 프로젝트를 위해 수입하는 설비·재료·샘플을 면세조치했다.

말레이시아는 작년에도 600개 품목에 이르는 수입세를 인하했는데 수입관련 업자중엔 자국내 가격인하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말레이시아정부는 이때문에 관세인하에 의한 이익이 소비자에 환원됐는지 여부의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12월 1일부터 소매점의 입회검사를 포함한 가격인하 상황조사와 단속을 개시키로 했다.

▲ 수입 관세인하품목

품 목	구세율	신세율
• 기계기구	30-55	25-30
• 전기 및 전기기구·부품(발전기·변압기·비디오·녹화장치·안테나·TV 브라운관)	25-55	5-30

中, 三峽 댐건설에 外資유치키로 — 美·日·加등과는 발전기부문 협력추진 —

중국은 양자강 유역 三峽댐 건설에 초기 11년 동안 적어도 308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외자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무원 사하 三峽댐 건설위원회(TGPCC) 구오 수안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물가수준에서 三峽댐 건설에 드는 비용이 9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의

건설은 17년에 걸쳐 완공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전기요금을 KWH당 0.003元 인상하고 게조바(GEZHOUBA)발전소 수익을 三峽댐 건설에 투자함으로써 초기 건설기간 11년동안 총수요자금의 51.5%인 327억元이 모금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오 부위원장은 이 기간중 프로젝트에 소요될 전체 비용의 48.5%에 해당하는 약 308억 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을 매우기 위해 중외 채권발행을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더욱이 게조바 발전소의 지분 개혁이 적절한 시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구오 부위원장은 유명한 국제금융기관과 접촉을 벌이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수출차관 제공의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中國, 검사미필 輸入品에 販禁令 — 韓·日·臺·獨등 9개국 28개 공장 제품 —

중국정부는 공식적인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입상품에 대해 즉각 판매를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은 161종의 가전제품 및 모터사이클이 판매금지대상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검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품들은 최근 국가수출입상품 검사국이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동 검사국의 한 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는 최근의 표본조사가 北京, 上海, 廣東省 및 전국의 13개성에 있는 적어도 91개 중·대형 점포 및 대외 무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받은 수입상품은 9개국 및 지역의 18개 공장에서 생산된 가정용 에어컨, 컬러TV수상기, 몇몇 종류의 모터사이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공장들이 주로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네덜란드, 러시아, 독일, 대만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의 안전 및 품질수준에 미달된 수입상품 가운데는 일본의 마쓰시타, 샤프, 한국의 금성, 네덜란드의 필립스등 유명브랜드 제품이 포함돼 있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검사되지 않은 외국상품의 대부분은 밀수와 같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입되고 있다. 또한 일부 중국내 무역업체들도 국경무역 또는 구상무역을 통해 수익이 보장되는 가전제품 및 모터사이클을 수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부의 관련검사규정을 어기는 경우도 있다.

이 관리는 관련검사규정 및 법규를 어기는 거래업체라면 누구라도 정부에 의해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C, 대형축전지에 高率關稅검토 - 反덤핑被訴국내업체들 조사에 非協調 -

EC는 한국산 대형축전지에 대해 70.6%의 고율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C집행위는 한국산 대형축전지에 대한 덤핑 조사과정에서 한국 피소업체의 비협조로 인해 제조자가 제공한 정보를 유일한 근거로 채택함에 따라 이같이 고율이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EC집행위는 또 한국산과 같이 덤핑제소됐던 대만산에 대해서는 93.7%(조사에 응한 한 업체의 경우 2.8%)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같은 내용들을 차기 반덤핑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C집행위는 앞서 필립스, BH 콤포턴츠(영국), 뢰더슈타인(독일)등으로 구성된 반덤핑연맹인 FARAD의 제소에 따라 금년 3월 10일이후 한국 및 대만산 대형콘덴서에 대한 덤핑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 덤핑건에서 한국의 피소업체는 대우전자부품, 삼화전기, 동화전자, 동성전자, 코리아엘나, 국광전기등 6개사이며 대만은 진메이전자, Taepo, Nitai등 3개업체이다.

이번 덤핑조사에서 국내업체들이 협조하지 않은 것은 대우전자부품의 경우 수출비용과다로 유럽 시장수출을 포기했고 삼화전기 및 동화전자는 공장폐쇄됐으며 韓日합작사인 코리아엘나는 일본측

의 미래용 방침에 따른 것으로 각각 알려지고 있다.

新 送電技術로 개발되고 있는 FACTS技術 - 전력수요 충족, 환경에 대처 -

FACTS(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기술은 증가하는 전력수요의 충족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력회사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기술을 개발중에 있는 EPRI에 따르면 FACTS기술을 채택할 경우, 전력회사들은 송전설비의 신뢰도 저하없이 기존의 송전 용량을 30%정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반도체 소자로 구성된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발전소의 터빈축을 손상시킬 수 있는 송전선로의 저주파수 진동현상(Sub-Synchronous Resonance 또는 Low Frequency Oscillation)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ACTS 기술개발사업을 10년 이상 지원해 온 EPRI는 Bonneville Power Administration(BPA)사의 Slatt 변전소와 연결된 2,500MW 용량의 500KV급 송전선로에 대한 FACTS기술 실증사업을 착수하였는데, 동 실증사업을 위하 EPRI는 1,300만불을 투자할 예정이다. (총 사업소요 비용 2,000만불)

FACTS 기술이 갖는 송전용량 증가효과는 잉여전력을 전력부족 지역으로 송전할 수 있는 등 지역간 전력유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Pacific Northwest 지역의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이 부족한 Southwest지역으로 송전하므로 Southwest 지역의 신규 화력설비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 (갈수기에는 역송전도 가능함.)

동 실증사업 이외에도 Western Area Power Administration(WAPA)사는 Kayenta변전소의 230KV 송전선로에 FACTS기술을 채택하여 송전용량을 100MW 증가시킨바 있으며, American Electric Power(AEP)사는 ABB사와 공동으로 간소형의 FACTS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FACTS 기술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지역별 분산 발전방식

(Distributed Generation)의 확산인데, FACTS 기술은 원격지간의 대규모 전력유통을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전력회사들이 분산 발전방식을 채택할 경우 FACTS 기술에 대한 수요와 시장은 감소될 수도 있다.

영국전력사, 해외사업 적극 추진 - 인도, 구동독, 미국등 진출 -

2년 반전에 민영화 단계를 거친 영국의 전력사들은 이제 국내시장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양대 전력사인 National Power와 PowerGen은 인도, 구동독 및 미국 등지에서 해외사업을 잇달아 발표하였으며 군소 지역 배전회사들도 해외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은 국내 전력설비의 과잉상태에 기인한 것인데 National Power사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Nuclear Electric사와 기타 독립발전업체들로부터 전력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이 40% 이하로 하락할 예정이다.

National Power사는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한 향후 10년간 전세계 신규 발전설비량을 800,000MW으로 추산하는 세계은행의 평가에 따라 전체 500조 파운드 규모의 전력시장 중 1조 파운드 규모를 확보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PowerGen사도 국내 시장의 감소 위험에 따라 경영자문회사에 해외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바 세계 전력시장에서 우위를 겨루고 있는 350개사를 조사한 결과 PowerGen사가 Top 10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힘입어 해외사업의 기회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해외 전력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 배전업체인 Midlands Electricity사는 가스회사와 수개의 전력사와 조인트벤처로 Wing Merrill International을 결성하여 쿠웨이트, 터키, 중국 등지에서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해외사업계획이 절반이 아직 착수되지도 않은 상태라 위험부담율이 높음에도 대다수가 낙천적으로 보고 국내시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데 있다는 지적도 있다.

中國, 최초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 - 에너지원 다양화 기대 -

수입 LNG를 연료로하는 중국 최초의 대형 복합사이클 가스터빈발전소 건설계약이 미국 웬메릴 인터내셔널(WM)社와 江蘇省電力局간에 체결되었다. 양자강연안에 240만Kw(건설비 24억\$)를 BOO(Built-Own-Operate)방식으로 WM사 및 관련회사가 70% 江蘇省이 30%의 지분을 소유하는 이 발전소는 18개월이내에 착수하여 97년에 운전개시 예정이다.

석탄매장량이 풍부한 중국에서 LNG발전 Project가 浮上하는 이유는 중국 철도망의 混雜性 때문으로, 홍콩의 호프엘 홀딩社가 江蘇省에 계획하고 있는 200만Kw(20억\$) 화력발전소의 연료도 석탄대신 LNG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LNG를 발전용, 주택 및 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카타르, 예멘, 말레이시아등으로 부터 LNG수입을 위한 장기계약교섭을 검토하고 있어 LNG발전소 건설이 중국의 에너지원 다양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정부는 중국전체의 발전설비용량을 2000년까지 기존 1억 5천만Kw에서 3억Kw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江蘇省電力局장관(Gu Ahi-Peng)에 따르면 인구 69백만인 江蘇省 발전설비 용량은 현재 1,050KW인데, 90년대의 연간경제성장률이 12%로 예상되어 앞으로 1,350만Kw의 신규발전소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연간 150~200만Kw를 건설해도 2000년에는 500만Kw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터키 전기산업설비展, 전시규모 확장 - 내년 10월 26일 이즈미르서 열려 -

터키의 발전기 및 케이블·전선등 전기산업관련용품 및 설비시장을 겨냥해 열리는 터키 전기산업 전시회(Elenex Turkey 94)가 내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터키 이즈미르의 국제전시장에서 열린다.

금년까지 터키전기산업 전시회는 이스탄불의 힐튼호텔전시장에서 열렸으나 내년부터는 3만평방미터의 전시면적을 갖춘 이즈미르의 국제전시장에서 전시규모가 확장돼 열린다.

주최측은 금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열린 Elenex-Turkey '93에 참가한 각국의 업체들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내년도 전시회에 참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금년 10월에 열린 전시회에서는 이스탄불과 앙카라에서 몰려온 1만3700여명의 바이어들이 참관했으며 21개국에서 1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했다.

또한 이 전시회에서는 중국국영전기장비사(CNEEC, The China National Electric Equipment Cooperation)의 주도하에 다수의 중국업체들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88개의 터키 업체들도 케이블·발전기·변압기·스위치기어등 전시산업에 관련된 각종 제품들을 다수 출품했는데 터키업체들도 터키정부의 수출장려정책에 자극돼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터키업체들은 ▲오는 95년부터 유럽 대다수의 국가들이 수입관세율을 대폭하향조정하거나 혹은 상당수 제품들의 수입관세율을 철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5월말 현재 중앙아시아국가들이 터키로부터의 수입을 80% 이상 늘리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출 및 합작투자상담에 응하고 있다.

<문의처 : OVERSEAS EXHIBITION SERVICES LTD, 11 Manchester Square, LONDON, W1M 5AB, UK

담당자 : Philip McKean · Fax : 44-(0)-71-935-8625>

韓 · 中 해저光케이블 建設협정체결

— 서울서 ... 泰安 · 靑島간 570Km구간 —

우리나라의 忠南 泰安과 중국의 山東省 靑島를 잇는 전장 570Km의 韓 · 中 해저광케이블 건설을 위한 건설 및 유지보수 협정이 체결됐다.

이 해저케이블은 이번 협정체결후 광전송시스템설계 및 건설루트 선정을 위한 해양조사등을 실시한뒤 내년 6월 건설공사에 착수, 오는 9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약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건설비는 양국이 50%씩 분담한다.

이 케이블은 56-Mbps(초당 5억 6천만비트의 정보전송)급 2개 시스템으로 건설돼 전화급으로 1

만 5120회선의 용량을 갖게 된다.

韓·中간 해저광케이블이 개통되면 그동안 위성을 이용해온 양국간 국제전송로가 다원화되고 고품질의 디지털회선이 공급돼 통신소통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또 한국통신이 추진하고 있는 범세계적 해저광케이블망 구축의 일환으로 건설중인 각종 국제 해저케이블과 연결돼 서방국가의 對중국통신을 중계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中國 入札 정보

▲ 중국국가기술수출입공사 국제입찰공사(ITC)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이 지원되는 양수식 발전소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구매를 입찰에 부친다.

※ 대상품목 : 펌프식 하이드로터빈 및 부속장비, 발전모터 및 부속장비, 전압장비, 공업용 TV 모니터 장비등

입찰서류는 ITC에서 취득할 수 있으며 입찰은 내년 2월 1일 오후 3시에 廣東양수식발전소합작공사 사무실에서 공개로 실시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로 문의바람

※ 연 락 처 : 726 DONGFENG ROAD, GUANGZHOU CITY, CHINA

※ TEL : (086-20) 7768198, 7782168 EXT.81651, 81658

※ FAX : (086-20) 7771703, 7771844

※ TELEX : (086-20) 7771703, 7771844

▲ 중국국가기계수출입공사 국제입찰 공사(CMC ITC)는 세계은행의 차관이 지원되는 제4철도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공급을 입찰에 부친다.

※ 대상품목 : 레일용 용접기계

입찰서류는 11월 26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CMC ITC에서 취득할 수 있으며 서류마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까지, 입찰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다.

* 연 락 처 : ROOM 11102, MAIN BUILDING, XIYUAN HOTEL, SANLIHE ROAD,
ERLIGOU, BEIJING, CHINA

* POST CODE : 100044

* TEL : 86(1)8325763, 86(1)8313388 EXT. 11102

* FAX : 86(1)8325779

* TELEX : 22881 CMIEC CN

▲ 중국국가기계류수출입공사(CMC)는 세계은행의 차관이 지원되는 揚州 제2화력발전소 프로
젝트에 필요한 물품을 입찰에 부친다.

* 대상품목 :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등

입찰서류는 11월 30일부터 CMC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취득할 수 있다. 서류마감
은 내년 3월 15일 오전 11시까지이며 입찰은 이날 오후 2시에 공개 개최된다.

* 연 락 처 : ERLIGOU, XIJIAO, BEIJING, CHINA

* POST CODE : 100044

* TEL : 86(1)8325763, 86(1)8313388 EXT. 11102

* FAX : 86-01-8327323, 8495053

* TELEX : 22883 CMIEC

* CABLE : MACHIMPEX BEIJING

인버터 리베이트制 導入 - 韓電 규격마련 '95년말 시행예정 -

인버터(VVVF)도 95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전자식안정기 등에 적용되고 있는 리베이트제가 도
입될 전망이다.

韓電 및 관련업계에 의하면 韓電은 인버터 고효율 전동기 등이 공장이나 빌딩에 적용될 경우 에
너지절약 효과가 탁월한 점을 감안, 이의 수요촉진을 위해 리베이트제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내년부터 이틀기기에 대한 기술평가와 성능평가 등에 착수, 규격을 마련한후 95년말이나 96년도 상반기에 리베이트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韓電은 현재 이틀기기의 평가와 사후관리를 위해 현재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소 등 외부 연구기관과 기술 및 성능평가기준을 확정키 위한 활발한 작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인버터업계는 이제 업체 나름대로의 수요 창출전략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오래전부터 상공자원부와 한전에 리베이트제 실시를 요망해오고 있다.

電氣 研究所, 초전도 변압기 개발 — 소형, 경량화로 변전소 설치면적 대폭축소 —

한국전기연구소가 기존 변압기에 비해 전력손실을 극소화하는 초전도 변압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초전도 변압기는 기존의 銅線을 이용한 상전도 변압기와는 달리 고압 및 저압권선을 저항이 0인 초전도체로 대체함으로써 전력손실의 방지와 전력효율의 극대화를 기함은 물론 전류밀도를 크게 함으로써 기자력을 대폭 향상시켜 변압기의 용량을 소형화 경량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초전도 변압기는 소형, 경량화로 도시변전소의 설치면적 축소등을 대폭 절약할 수 있으며 2000년대에는 기존변압기의 완전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가장 먼저 개발한 일본의 1500KVA의 초전도 변압기의 실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기연구소는 이번 개발로 2005년까지 6천 600V의 1백KVA 초전도 변압기를 개발, 실용화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상품할 예정이다.

품질우위 확보하여 세계시장 석권하자